

## 학생대표 간담회에서 21개 안건 논의

‘2023학년도 제2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가 10월 30일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본부 관계자 17명과 학생대표 12명 등이 참석했으며 학사 및 장학 부문과 생활 및 복지 부문 등에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 학사 및 장학 부문 안건

- 기계전자공학부 분할 요청
- 모집중지 트랙 복학생 지원 요구
- 교양필수 분반 증설 촉구
- 1학점 강의 증설 불가
- 트랙 간 상호인정과목 추가 요구
- 교원 충원으로 전공필수 분반 증설
- IPP 모집 대상 트랙 확대 건의
- 한성인재포인트 산정 기준 논의

IT공과대학(이하 공대) 학생회는 기계전 자공학부를 기계공학부와 전자공학부로 분리해 달라고 ‘2023학년도 제1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에 이어 한 번 더 요구했다. 나은정(컴공 3) 공대 부학생회장은 “기계 관련 트랙과 전자 관련 트랙의 교육과정도 전혀 다르다”며 “전자트랙과 시스템반도체트랙은 전자공학부 소속으로, 기계설계트랙과 기계자동화트랙은 기계공학부 소속으로 학부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훈(전략기획팀) 팀장은 “현재 모든 운영 단위는 최소 3개 이상의 트랙으로 운영 중이므로 2개 트랙만으로 운영한다면 제약이 많을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공대 학생회는 휴학 상태에서 소속된 트랙이 모집중지된 복학생에 대해 학교 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나 부회장은 “복학 후 지능시스템트랙이 폐지돼 AI응용학과로 전과하려 했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학사지원팀) 팀장은 “AI응용학과는 2022학년도에 신설된 학과이기 때문에 22학년 이후 학생이 모집 대상”이라면서도 “제2트랙을 AI응용학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양필수 과목 분반 증설 요청사항도 존재했다. 박진성(사회과학 3)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장은 “교양필수 과목인 ‘글로벌 시민의식 분야와 삶과 꿈’ 과목은 1학년 때 수강하지 못할 경우 수강신청 기간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며 “분반 인원이나 개수의 확대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윤석(상상력교양대학 교학팀) 팀장은 “2024학년도부터 교양필수 과목을 기존 8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하고 필수 이수 학점도 기존 16학점에서 13학점으로 감경시킬 예정”이라며 “교양 이수체계 개편을 통해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1학점 강의를 증설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문희정(ICT 3)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학생회장은 “1학년 학생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18학점 강의를 수강해야 하지만 1학점 강의를 부족해 18학점을 신청하기 어렵다”며 1학점 강의의 증설을 요청



▲ 김승희 총학생회장(좌), 이창원 총장(우)

했다. 이에 최 팀장은 “대학생활 길라잡이”나 “K-MOOC” 등을 통해 1학점 수강이 가능하다”며 “2024학년도부터 모든 교과목이 3학점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1학점 강의의 증설은 어렵다”고 말했다.

트랙 간 상호인정과목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나 부회장은 “시스템반도체트랙이 신설되면서 전자트랙의 강의 중 일부가 시스템반도체트랙에서도 동일하게 개설됐다”며 “담당 교원과 교육과정이 동일함에도 상호인정과목이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전자트랙과 시스템반도체트랙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트랙의 독자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조치이므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답했다.

디자인대학 학생회는 전공필수 과목 분반을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정형주(패션 3)

디자인대학 부학생회장은 “디자인대학 전공 필수 과목 중 컴퓨터 실습실에서 진행되는 강의의 일부가 분반이 부족하다”며 분반 증설을 요청했다. 김 팀장은 “글로벌패션산업부에서 분반 개수와 관련한 민원을 몇 학기째 제기하고 있다”며 “해당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교과목을 담당할 교원의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과대 학생회는 IPP사업단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의 모집 대상이 되는 단과대학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은 공대 내 일부 학부·트랙 소속의 학생을 주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다. 손병호(IPP사업단) 팀장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의 수요가 많아 소프트웨어 관련 트랙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라며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은 트랙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성인재포인트 산정 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다. 문 회장은 “일부 학생은 높은 학점을 받아도 비교과 포인트가 부족해 한성인재장학금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며 한성인재장학금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인 한성인재포인트의 산정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성인재 장학금은 소속 학부 및 트랙에서 학년별로 한성인재포인트를 가장 많이 모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한성인재포인트는 한 학기 동안의 성적과 취득한 비교과 포인트를 점수로 환산해 산정된다. 이와 관련해 서은경 교학부총장은 “비교과 프로그램은 균형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한 교과 과정 중 하나”라며 “본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 2면에 계속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 대책 수립됐다



▲ 지난달 23일, 공학관 B동 입구 우측의 소화전 앞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지정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본교 내부의 전동킥보드 지정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다수의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주차되는 상황이 지속돼,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지정주차구역을 늘리는 등 자체적인 개선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인 ‘SWING(이하 스윙)’을 통해 무단으로 주차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본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총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같은 규정 제10조에서는 지정된

주차구역 외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교는 창의관 앞과 우촌관 1층 우편취급국 앞 등에 지정주차구역을 조성했다. 그러나 현재 지정주차구역이 아닌 일부 장소에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주차되고 있다. 창의관 좌측의 인성관으로 이어지는 길목과 공학관 B동 입구 우측의 소화전 앞 등에서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다수 발견됐다.

공학관 B동 입구 우측의 소화전 바로 앞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단 주차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학본부는 대면수업 전환으로 인해 학내를 출입하는 전동킥보드가 늘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동 방해 등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지정주차구역 확충과 안내를 통해 해당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순선(총무인사팀) 팀장은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지정주차구역을 안내함과 동시에 정문과 탐구관 부근에 지정주차구역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본부는 스윙 측에 학내 지정주차구역의 위치를 안내함으로써, 스윙이 지정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스윙은 자체적인 GPS를 통해 전동킥보드가 지정주차구역에 주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안내문 부착 등의 방안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에게 지정주차구역을 안내해 학생들이 지정주차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중구난방 홍보 포스터... 게시판 확충 논의 중 상상관 2층 팔고당 맞은편 벽면의 지난달 23일 모습이다. 이곳은 홍보 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각종 홍보 포스터가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곳의 맞은편 벽에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존재하지만, 크기가 작아 여러 홍보 포스터가 겹치거나 게시 공간을 벗어난 채로 부착돼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유동인구가 많아 홍보 포스터가 다수 부착되는 진리관 외벽의 게시판과 연구관 1층 엘리베이터 맞은편의 게시판에서도 발견됐다. 「학생준칙」 제17조에 따르면 교내·외에 광고 등을 게시할 때는 학생처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하지만, 홍보 포스터가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문제는 꾸준히 지속돼 왔다. 이에 제38대 총학생회 ‘이음’은 홍보 포스터 부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게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올해 들어 추가로 설치된 게시판은 아직 없는 상태다. 김승희(IT융합 4) 총학생회장은 “게시판이 아님에도 홍보 포스터의 부착이 주로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했고, 관련 부서와 논의 중”이라며 공약 이행 상황을 전했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대부분 긍정적 답변 도출

## 생활 및 복지 부문 안건

-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사항 제시
- 학술정보관 일부 컴퓨터 교체
- 와이파이·e-class 서버 안정화 촉구
- 학생식당 이용 불편 해소 요청
- 스쿨버스 교체 예정
- 시설 개선사항 다수 논의
- 풋살장 대여시간 보장 요청
- 공간부족 문제 해결 요구

비교과 프로그램의 시간대와 공지 방식에 대한 개선사항도 제시됐다. 문 회장은 “오후 4시 이전에 활동을 종료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아 수업이 있는 경우 참여하기 어렵다”며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대의 다양화를 바랐다. 이어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공지를 스마트자기관리 시스템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훈(학생성공센터) 센터장은 “오후 4시 이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충분히 마련돼 있으나 홍보가 부족해 개수가 적다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의 일평균 방문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며 “이는 본교 홈페이지 방문자 수보다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 학생회는 학술정보관 6층 멀티미디어정보실 내 컴퓨터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현우(인문 4) 인문예술대 학생회장은 “학술정보관 6층 멀티미디어정보실의 컴퓨터 상태 개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이에 대해 “최신 컴퓨터로 교체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총학생회는 교내 와이파이 연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오주립(인문 3) 부총학생회장은 “와이파이 연결을 여러 번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민호(정보화팀) 부팀장은 “학생들의 사용량이 많을 경우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상황과 시기 등을 자세히 제보한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것”이라 전했다.

총학생회는 e-class 서버의 안정적 운영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희(IT융합 4) 총학생회장은 “과제 제출 마감 시간대인 오후 11시경 e-class 서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바란다”

고 전했다. 이에 서화정(스마트원격교육센터) 센터장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e-class 서버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생겼을 때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게 안내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는 창의관 지하 1층 학생식당 이용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채희(인문 3) 부위원장은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학생의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메뉴의 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리의 청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 학생들이 직접 테이블의 오염물을 치운다”며 학생식당의 청결도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장영우 총무처장은 “공간 협소 문제는 교직원식당 공간을 공유해 해결하고, 학복위에서 학생 선호 메뉴를 제공하면 업체 측과 메뉴에 관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청결도와 관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학생회는 스쿨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스쿨버스가 운행되는 시간대가 적어 학생들이 밀집되고 수업시간과 연계되지 않은 시간대도 있다”며 “45인승 버스가 다시 운행되거나, 스쿨버스 운행 정보 변경 시 공지가 이뤄진다면 스쿨버스 이용 학생들도 대처하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처장은 “45인승 버스는 내구연한을 넘겨 폐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스쿨버스를 25인승에서 33인승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총대의원회는 교내 시설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권수민(인문 4) 부의장은 “상상관 2층에 위치한 여학생휴게실에 빈백 추가 설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 및 공휴일에는 학내 냉·난방기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철우 총무부처장은 “여학생휴게실 빈백 설치는 바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야간 및 공휴일의 냉·난방기 가동에 대해서는 “야간잔류 신청서가 ADT캡스 상황실에서 중앙관제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화장실 환경 관련 건의사항도 있었다. 나현채(IT융합 4) 학복위원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악취 개선을 위해 방향제가 필요하고, 화장실 문고리가 고장이 나 잘 잠기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박 부처장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화장실에 한해 방향제를 설치할 것이며, 문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속했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상상파크의 자 높이의 개선을 건구했다. 전수연(기계전자 4) 동연회장은 “상상파크 창가에 설치된 의자가 높아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부처장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풋살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풋살장 대관 시 학생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요청사항도 존재했다. 박 회장은 “외부 대관 비율이 많아 학생들이 잔디광장 옆 풋살장을 대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학생들을 우선으로 대관 요청을 받고 추가적으로 대관을 진행해 학생들의 풋살장 대관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풋살장은 전월 1~15일에 대관 신청을 해야 당월에 사용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 학내 중요행사 등은 신청 기간 이전에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안 팀장은 “동아리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은 후 학생들의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용 횟수 조율을 통해 풋살장 사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동연은 지난 학기에 이어 동아리방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 회장은 “4호선마이크와 낭동이가 하나의 동아리방을 사용 중”이라며 “공간 창출이 추가로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 팀장은 “총무처 측에 공간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문제”라고 밝혔다.

실습실을 확충해 달라는 요청사항도 존재했다. 나 부회장은 “전자트랙과 시스템반도체트랙은 학생이 많은 편임에도 실습실 수가 부족하다”며 “트랙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마다 각 트랙의 학생 수를 파악해 그에 비례하게끔 공간 재배치가 이뤄지지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 처장은 “트랙 정원에 따른 공간 배분은 대학본부 측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를 통해 개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의대 학생회는 소속 학과 학생회와 학생회실을 공유하는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회장은 “창의대 학생회가 학생회실에 상주해야 하기에 학과 학생회는 학생회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2023학년도 제1차 학생대표 정기간담회’에 이어 공간 부족에 관한 요청사항이 쇄도하자, 이창원 총장은 “이번 겨울에 이뤄질 공간 배치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실기고사 종료, 작년 대비 지원 인원 1,000명 가량 증가



▲지난달 15일 낙산관 체육관에서 ICT디자인학부 수험생들이 실기고사를 응시하고 있다.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전형 실기고사(이하 실기고사)가 지난달 14일·15일과 21일 진행됐다. 14일에는 예술학부(무용, 회화), 15일·21일에는 ICT디자인학부 학생 선발을 위한 실기고사가 시행됐다. 실기고사를 통한 수시전형의 모집인원은 총 128명이었고 지난해보다 약 1,000명 많은 3,844명이 지원해 30.0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기고사는 ▲탐구관 ▲낙산관 ▲상상관 ▲한성여자고등학교 등에서 실시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자진 신고 시 창의관에 마련된 별도고사실에서 응시할 수

있었다. 다만 작년과 달리 코로나19의 범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입소 동선 분리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ICT디자인학부 시험에 응시한 오승환(18) 수험생은 “시험을 마치니 후련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실기고사와 관련해 전민우(입학관리팀) 부팀장은 “이번 실기고사 중 수험생의 부정행위로 인한 실격 처리가 발생한 바 있다”며 “수험생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창업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2023 지역과 함께하는 KU×HSU 캠퍼스타운 UP!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상상관 일대에서 지난 19일 진행됐다. 페스티벌에서는 본교와 고려대학교의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의 홍보가 이뤄질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됐고,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됐다. 페스티벌은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고려대 캠퍼스타운 입주기업과 본교 학생,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특강 ▲IR\* 데모데이 ▲메타버스 3D 커스텀 콘텐츠 창작대회 ▲전문가 멘토링 ▲입주기업 홍보부스 ▲상생 프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행사에 참여하며 소

책자에 도움을 받는 스탬프투어를 통해 최대 50pt의 비교과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강수빈(인문 1) 학생은 “운전면허 관련 플랫폼 등 여러 기업들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관련된 행사가 진행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에 대해 표혜원(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운영연구원은 “앞으로도 캠퍼스타운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IR : 투자 유치를 목표로 투자자에게 사업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

박건희 기자 enqk@hansung.ac.kr

#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낙산에 올라 소리치는 당신의 생각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 제 | 자유 주제

분 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1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5.5매)

혜 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재

문 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전반적 만족도 높은 동아리방,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 본부 “안전한 동아리 활동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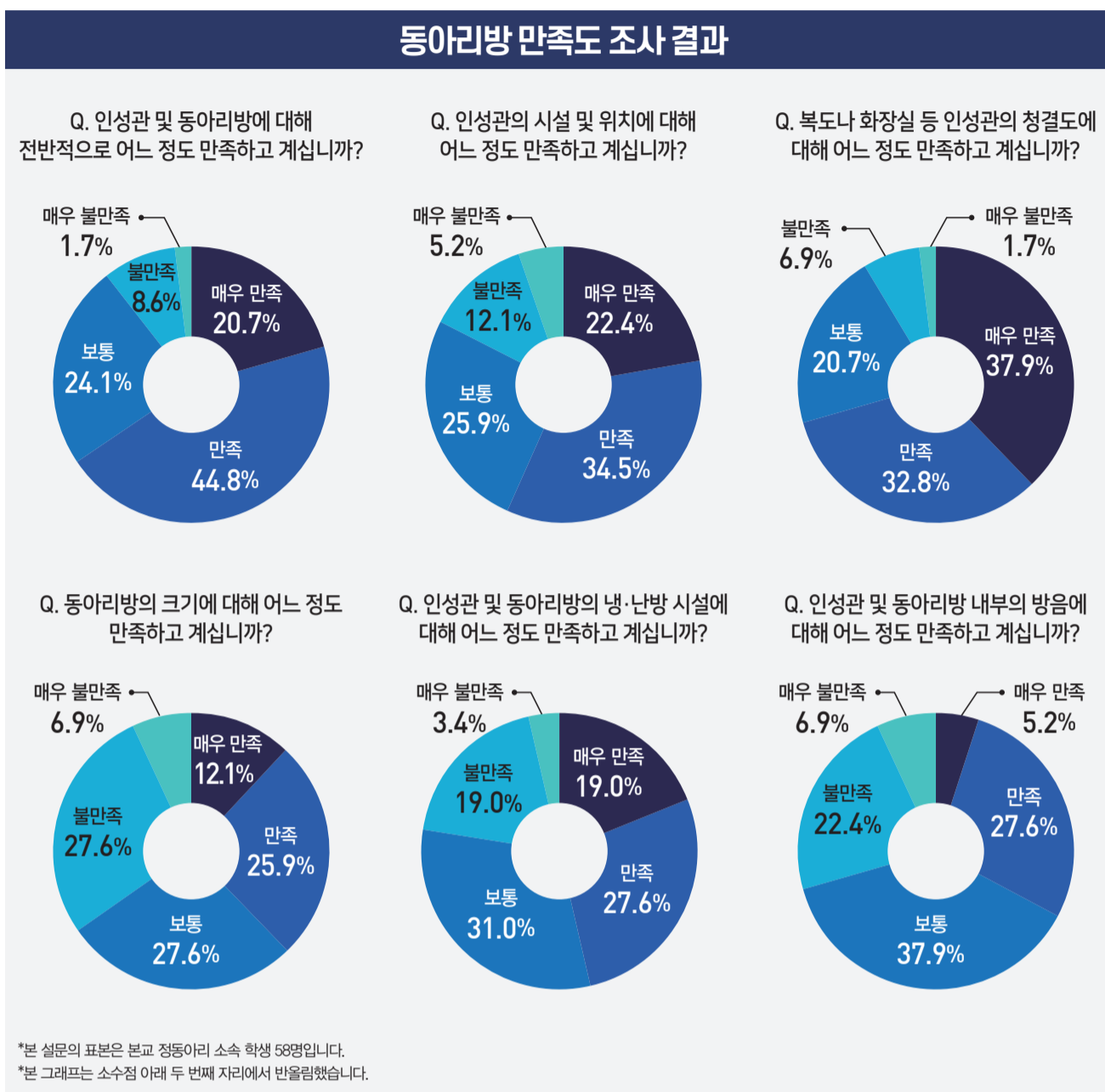
인성관에 위치한 동아리방은 본교 「학생 복지시설 운영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복지시설’ 중 하나다. 「학생복지시설 운영 규정」 제3조에서는 학생복지시설이 학생들의 편의와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학내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 인성관 동아리방의 방음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본사가 인성관 및 동아리방에 대한 정동아리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본교 정동아리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아리방 만족도 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됐다. 총 58명의 응답자가 참여한 설문조사에는 인성관 및 동아리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시설 및 위치 ▲청결도 ▲크기 ▲냉·난방 시설 ▲방음 ▲모든 정동아리에 동아리방이 주어질까 하는지 찬반 여부 등을 묻는 항목이 포함됐다.

정동아리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동아리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관 및 동아리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20.7%)’, ‘만족(44.8%)’이라고 답한 비율이 총 65.5%로, ‘불만족(8.6%)’, ‘매우 불만족(1.7%)’과 큰 차이를 보였다. 문혜지(사회과학 4) 학생은 “청결도가 준수하고 건물이 쾌적해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성관의 시설 및 위치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성관의 시설 및 위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22.4%)’, ‘만족(34.5%)’, ‘보통(25.9%)’, ‘불만족(12.1%)’, ‘매우 불만족(5.2%)’의 결과가 나오며, 56.9%의 응답자가 만족 의견을 보였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인성관의 접근성이 높아서(81.8%)’, ‘바닥, 벽 등 내부 시설이 노후하지 않아서(21.2%)’ 등이 제시됐다. 문 학생은 “내부 시설은 비교적 새로 지어진 건물들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정현(문헌 2) 학생 또한 “바닥이나 벽 등의 내부 시설이 깔끔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성관의 청결도 또한 정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방에 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로 파악됐다. ‘복도나 화장실 등 인성관의 청결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매우 만족(37.9%)’, ‘만족(32.8%)’, ‘보통(20.7%)’, ‘불만족(6.9%)’, ‘매우 불만족(1.7%)’의 응답이 집계됐다. 정동아리 구성원들은 ‘복도에 쓰레기가 잘 보이지 않아서(78%)’, ‘화장실 청소가 주기적으로 진행돼서(65.9%)’ 등의 이유로 인성관 청결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학생은 “복도와 화장실 모두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인성관 및 동아리방을 이용하면서 청결과 관련한 불만을 겪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인성관과 동아리방의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만족 의견이 도출되며, 냉·난방 시설 역시 정동아리 구성원들이 인성관과 동아리방에 만족하는 하나의 이유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관 및 동아리방의 냉·난방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19%)’, ‘만족(27.6%)’, ‘보통(31%)’, ‘불만족(19%)’, ‘매우 불만족(3.4%)’ 등의 응답이 기록되며, 만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냉·난방 기기가 고장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70.4%)’, ‘냉·난방 기기를 직접 가동할 수 있어서(66.7%)’ 등을 냉·난방 시설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로 꼽았다. 안 학생은 “냉·난방 기기 모두 조작이 원활하고, 온도도 적절해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리방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부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리

방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12.1%)’, ‘만족(25.9%)’, ‘보통(27.6%)’, ‘불만족(27.6%)’, ‘매우 불만족(6.9%)’ 응답이 기록되며, 37.9%의 응답자가 만족 의견을, 34.5%의 응답자가 불만족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 정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은 모든 구성원이 동아리방에 전부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윤지(사회과학 2) 학생은 “인성관의 동아리방은 매우 작다”며 “부원 10명만 동아리방에 있어도 모두 앉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다빈(기계전자 4) 학생은 “공간에 가구나 물품들을 배치하게 되면 공간이 비좁아진다”며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인성관 및 동아리방 내부의 방음에 대해 묻는 질문도 타 문항에 비해 불만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5.2%)’, ‘만족(27.6%)’으로 총 32.8%였고,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불만족(22.4%)’, ‘매우 불만족(6.9%)’으로 총 29.3%였다. 응답자들은 ‘동아리방 외부 및 타 동아리방의 소리가 잘 들려서(94.1%)’ 등의 이유로 동아리방의 방음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학생은 “다른 동아리방의 이야기 소리나 음악 소리 등이 들려 할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학생도 “천장과 양쪽 벽 모두 방음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며 “방음 시설이 확충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본교에는 동아리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일부 정동아리는 타 정동아리와 동아리방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우님께서는 모든 동아리에 동아리방이 주어질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72.4%)’, ‘아니오(27.6%)’의 응답이 도출돼, 다수의 응답자가 동아리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학생은 “본교의 정동아리라면 차별 없이 모든 정동아리에게 동아리방이 주어질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또한 “동아리방 없이 활동을 진행할 경우 부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 제한이 생길 것 같다”며 동아리방이 확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태민(학생생활팀) 부팀장은 “현재는 공간이 없어 추가로 공간을 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아리활동 평가를 통해 정동아리가 준동아리로 강등될 경우 발생하는 공간을 현재 동아리방이 없는 정동아리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준동아리에게는 동아리방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전수연(기계전자 4) 동아리연합회장은 “대학본부 측에서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 올해 내로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현재 대학본부 측의 구체적 방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박 부팀장은 “동아리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동아리 구성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건희 기자 enqnk@hansung.ac.kr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 제보하기

학생의 권리를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Tel : 02)760-4186

Fax : 02)760-4389

E-mail : hansungnews@gmail.com

KakaoTalk : @hansungnews

Instagram : @hansung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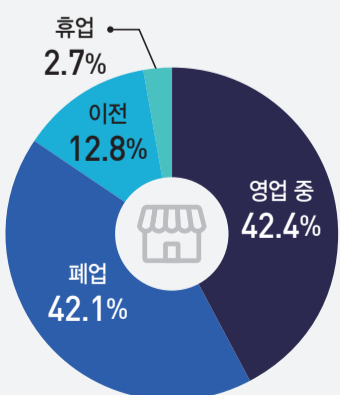
# 발길 끊긴 청년몰 多 복구 희망은 有

‘청년몰’이 실패했다. 지난 2021년에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에 개점한 672곳의 청년몰 내 점포 중에서 영업 중이었던 점포는 단 285곳(42.4%)에 불과했다. 86곳(12.8%)의 점포는 이전했으며, 18곳(2.7%)은 휴업, 283곳(42.1%)은 폐업했다. 전통시장의 재생을 위해 투입된 청년몰이 전통시장과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청년몰은 전통시장이나 쇠락한 상권에 다시 소비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창업 또한 진흥시킬 목적으로 지난 2016년 시작된 사업이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일정 구역에 조성되는 청년몰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이 운영하는 점포만 입점할 수 있다. 청년몰에 입점한 상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창업 시 필요한 임대료,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각 청년몰만의 특색이 있는 사업 아이템이 부재해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지 못했던 점을 가장 큰 패인으로 꼽았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안에서도 공실이 발생하는 2층 등지에 주로 입점했다. 그렇기에 더욱이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는 특별한 경쟁력이 필요했으나, 창업 이전의 사전 교육 단계에서 사업 아이템의 특이점이나 생존 가능성 등이 심층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임현철(대구가톨릭대학교 외식조리학과) 교수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색다른 서비스, 메뉴 등의 차별화가 적었다”며 “청년몰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시중 상가에서 판매하는 제품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소비자가 청년몰보다 입지가 좋은 곳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갑연(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요식업 등으로만 청년몰이 운영되다 보니 실패가 많아진 것으로 추측된다”며 “사전 컨설팅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청년상인 영업 현황



\*표본 : 2017~2020년 중 개점한 청년몰 내 점포 672곳  
\*기준 : 2021년 7월  
\*자료 출처 : 신정훈 의원실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공실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입점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몰이 손님 찾기가 힘든 곳에 위치해 있는 데 비해 안내판과 같은 오프라인 상의 홍보가 부족해 기존 전통시장 방문객의 유입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 역시 미비해, 전통시장을 주로 찾는 사람들 이외에는 청년몰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워 소비자층의 다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서울에 남은 유일한 청년몰로, 경동시장에 입점해 있는 ‘서울웨미리’의 신정훈(서울웨미리 청년상인) 대표는 “전통시장 현장에서 알릴만 같은 안내 체계가 확충되는 등 홍보가 더 이뤄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청년몰 관리를 맡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청년몰의 존속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실제로 수도권에 위치한 청년몰 4곳이 소속된 지자체 중 3곳은 청년몰 담당 인원이 1명이었고, 1곳은 그마저도 존재하지 않았다. 임 교수는 “담당 공무원이 여러 업무를 맡다 보니 평소에는 청년몰 문제에 관심이 크게 없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이 청년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조성부터 추진한 것도 또 다른 패착으로 꼽힌다. 청년몰이 위치한 전통시장 내에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냉·난방 시설,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 소비자의 유입을 막았다는 지적이다. 청년몰 입점을 통해 유동 인구의 증대를 노렸다면, 기대하는 유동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지자체가 홍보 목적으로 빠르게 청년몰을 입점시키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다”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각 청년몰이 위치한 지역이나 전통시장의 특징 등을 고려해 다른 상점가와 뚜렷이 구분되는 콘셉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년몰 내의 점포들은 콘셉트에 맞게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특색있는 콘셉트 외에도 각 점포의 업종과 사업 아이템을 차별화하는 것 역시 방문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점 전 사전 교육 및 컨설팅 과정에서 사업 아이템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 여부 등을 더 다양한 전문가에게 조언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강조된다. 더 다양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면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방문객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임 교수는 “한 업체에 컨설팅을 모두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외식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 사업 아이

템에 맞는 분야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고, 각 분야별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람의 수도 많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온·오프라인 양면에서 기존보다 홍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청년몰 점포가 온라인에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풀’을 개설한다면 오프라인 소비자 유입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다. 실제로 전통시장의 점포 일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도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입점해 매출 증진과 소비자 유입의 효과를 얻고 있다. 정 교수는 “청년몰의 홍보는 지자체의 홍보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홈페이지나 방송국 등을 활용해 마케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안화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상점이 이슈가 될 경우 소비자가 방문한다”며 SNS를 활용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몰의 사후 관리가 원활히 이뤄지려면 지자체가 창업 컨설팅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청년몰 관리 담당자로 초빙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문가가 경험을 바탕으로 홍보와 컨설팅 등 교육을 담당한다면 청년몰이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 교수는 “관련 경험이 있는 인력을 초빙해 청년몰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경우, 전문성이 올라가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높은 성과로 이어진다”며 “전통시장과 청년창업의 실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통시장의 편의시설을 제정비해 소비자가 청년몰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이 확충된다면 재방문하는 소비자가 늘어난다. 청년몰과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의견이다. 정 교수는 “편의시설 개선은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약 5년 이내 편의시설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각 청년몰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각각의 요인을 파악한 후 정부가 청년몰 활성화 관련 정책을 준비하거나, 청년 창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활용한다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임 교수는 “상권 입지 전문가나 창업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과 청년몰을 분석해 적용한다면, 청년몰 사업을 다시 성공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건희 기자 enqnk@hansung.ac.kr



그 법의 어제와 오늘

## n번방 방지법, 개정 필요성 대두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전 국민을 경악에 빠트렸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는가. 약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매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9년에 662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262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자 국회가 통과시킨 6개 법률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정 내용을 통칭하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통신사업자가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자를 뒤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은 오픈채팅 등에서 사용자가 공유하는 동영상에 불법촬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 2에 신분비공개수사\*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가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형법』 등이 함께 개정됐다.

전에 없던 조직적이고 큰 규모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각종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었다. 각각의 이름이 붙여진 8개의 비밀대화방에서 여성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됐고, 이로 인해 ‘n번방’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병도(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가 증가했고, 다수의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된 법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3조의6에서는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통신사업자만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같은 규정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뒤야 하는 사업자를 제한하고 있다. 막상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은 이 같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교수는 “범죄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플랫폼에 제재가 들어올 경우 새로운 플랫폼으로 갈아타며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신분비공개수사\*가 ‘범의유발형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범의유발형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던 이에게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해 범죄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이준복(서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의유발형 수사에 관한 판단은 담당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당시에 가해자에게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의무를 갖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병도 교수는 “일반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접근하기 최대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기준이 필요하며,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액 이외의 대안적인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범의유발형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과 수사를 목적으로 범행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사를 맡은 경찰 등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복 교수는 “신분비공개수사의 개념을 명확히 해 범의유발형 수사 등에 휘말리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분비공개수사 :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해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하는 수사기법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문화는 내가 제일 잘 알지

# 중고 열풍,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

## 뒤늦게 발견한 중고의 매력

중고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남이 썼던 물건에서 오는 '불편함'에서 나에게 필요 없지만 나에게도 관심은 물건이라는 '새로운 발견'으로 청년층의 인식이 변화한 탓이다. 최근에는 서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팔며, 상부상조하는 하나의 창구가 마련됐다고 느끼는 것이다. 정해진(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새로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과정"이라며 "영어로도 'used'(전에 사용했던)라는 단어 대신 'preloved'(전 소유주가 극진히 아꼈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사람이 정성스럽게 잘 사용한 후, 자신보다 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중고를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의 부를 뽐내거나 과시하는 '플렉스' 소비 문화가 유행이었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며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려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사고 싶은 물품에 있어 구매를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거의 새 상품과 다를 바 없는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자신이 마친 물건은 좋은 조건으로 손쉽게 획득할 기회를 통해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중고 소비 문화가 유행하는 이유는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빠르게 제작돼 빠르게 유통되는 '패스트 패션' 산업의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나 합성 재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물과 기름 등이 사용된다. 또한 옷감의 질감이 떨어져 헤지고 버려지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된다. 관련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 관심을 두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 교수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을 지향하거나 과소비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에 따라 자연스레 중고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 더욱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익숙한 청년들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앱의 경우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 채팅으로 거래해 택배나 우편으로 거래 물품을 발송할 수 있어 비교적 쉽게 거래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와닿는 것이다. 김우혁(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청년 세대는 중고 거래 앱 형태인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한데, 이는 성장기 시절부터 디지털 플랫폼에 노출되며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직접 만나서 물건을 전달하는 직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택배비나 우편비가 별도로 부과되기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얻어내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온라인 거래는 물건이 제대로 오지 않았거나 다른 물건을 배송 받는 등의 사기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조적으로 별도의 배송 비용이 필요 없는 직거래는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다. 자신의 물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거래는 사기 발생 가능성도 비교적 낮다.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1학년 재학 중인 이채연 학생은 "포토 카드를 구매하려 했는데 동네에서 직거래를 할 수 있어서 사기와 같은 범죄 가능성에 비교적 안심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기자도 직접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쓰지 않는 노트북 케이스를 팔아봤다. 노트북 케이스를 깨끗하게 보이도록 잘 정리한 후 사진을 찍어 앱에 업로드했다. 중고 거래는 처음인지만 거래할 사람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 속에서 거래 연락이 오길 기다렸다. 마침내 거래 연락이 왔고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노트북 케이스를 전달했다. 기자에게는 쓸모를 다한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 빈티지 스타일의 귀환

다시금 불거진 레트로 열풍으로 청년들은 '빈티지'한 옷 스타일을 찾기 시작했다.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지나간 시대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빈티지 스타일의 옷들이 유행하게 됐다. 김 교수는 "레트로는 기성세대들에게는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지만, 청년층에게는 독특하고 색다른 방향의 소비를 하는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일부 빈티지 옷은 이제 다시 팔지 않아, 즉 희소성이 강해 더 많은 청년들의 구매력을 자극한다. 이러한 희소성은 청년층에게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도 된다. 현재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과거에 유행했던 스타일의 중고 옷을 한 번에 모아둔 가게에 청년들의 발걸음이 많아진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정 교수는 "빈티지 옷을 찾아내는 재미도 있고, 다양한 시대의 유행을 보여주는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매치해 자신의 패션 지식과 감각을 뽐내기도 한다"고 밝혔다.

빈티지 마켓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옷의 무게를 재서 가격을 측정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옷의 종류나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무게로 가격을 측정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더 저렴

하게 옷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선우 학생은 "옷의 무게로 가격을 측정하는 마켓을 최근 SNS에서 알게 되었는데, 개별 가격으로 사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기자가 무게로 가격을 측정하는 '그램달'에 직접 방문해 봤다. 인적이 드문 지하에 위치한 비교적 외진 장소에 있었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 규모가 크고 이미 많은 청년이 그곳에서 쇼핑 중이었다. 기자도 좋은 옷을 놓치지 전에 얼른 옷들을 담기 시작했다. 한가득 널려 있는 옷 중에 기자의 취향에 맞는 옷들을 쭉쭉 골라내는 재미가 있었다. 일반 쇼핑몰에서는 구할 수 없는 빈티지 옷들이 곳곳에 있어 보물찾기 놀이도 떠올랐다. 너무 많이 담은 것이 아닐지 하는 걱정 속에 옷의 무게를 재봤다. 예상 외로 적은 금액에 재차 가격을 확인했다. 다섯 벌 넘는 옷을 후드티 한 장 가격에 득템했으니 말이다. 왜 청년들이 많고 많은 중고 물품을 구매하는 데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게 됐는지 알게 됐다.

## 굳이 새 휴대폰일 필요 없다

백만 원을 훌쩍 넘기는 새 휴대폰의 가격에 부담을 느낀 청년들이 휴대폰 또한 값싸게 구매하기 위해 중고 거래를 이용한다. 몇 년 전에 출시된, 가격 측면에서 비교적 저렴한 모델을 새 휴대폰 대신 중고로 구매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새로운 버전의 휴대폰이 계속 출시되다 보니 지속해서 휴대폰을 교체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그러한 유행 속에서 원하지 않아도 내심 휴대폰을 좋은 버전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새 휴대폰 구매에 대한 청년들의 반발"이라고 전했다.

옛날 느낌의 카메라 색감을 선호하면서 그 시대 특유의 카메라 색감을 구현하기 위해 중고폰을 구매하기도 한다. 최신 휴대폰에서 레트로 감성을 모방하는 필터 앱에 만족하지 않고 특유의 아날로그 질감을 제대로 표현한 옛날 중고폰을 구매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화소 수가 낮은 '소박한'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엄청나게 고화질인 이미지와 차별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들은 인터넷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한 '디지털 디톡스'의 일환으로 인터넷이 불가능한 옛 중고폰을 찾기 시작했다. 디지털 디톡스는 일정 기간 전자기기의 사용을 멈춰 휴식이나 다른 활동 등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옛 중고폰의 특성상 인터넷이 잘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인터넷과 멀어지기에 많은 이들은 이를 노려 옛 중고폰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서정은 학생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느꼈다"며 "마침 폴더폰이 유행하던 시점이었기에 폴더폰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유행에 힘입어 기자도 어린 시절 유행했던 옛 중고폰 중 폴더폰을 중고 거래로 구매해 봤다. 이어 직접 하루 동안 스마트폰 없이 폴더폰으로만 생활해 봤다. 인터넷이 되지 않아 휴대폰 자체를 잘 들여 보지 않게 되는 과정에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거리의 모습과 사람들의 표정 등 다양한 풍경



사진 : 김유성 기자

▲기자가 구매한 중고폰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 : 황서연 기자

▲'굿윌스토어'에서 옷을 고르는 기자

이 기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편리함이 때로는 우리를 인터넷 세상에 갇히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중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중고 물품 거래의 목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청년들이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사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굿윌스토어'가 대표적인 가게다. 시설에서 자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취지에서 시작된 굿윌스토어는 일반 기업에 취직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해 그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다. 물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을 이끈다. 서 학생은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데, 나의 구매가 누군가를 위한 일이 되기도 해 한 층 기분 좋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기자도 직접 '굿윌스토어'에 방문해 봤다. 이미 많은 이들의 장터가 자리한 이곳은 커다란 장바구니를 가져온 채 쇼핑하는 이들도 있었고 지나가다 둘러 물품을 구경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와중에 그곳에서 일하는 한 청년 장애인의 눈에 들어온다. 중고 물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타인을 돕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니, 더욱 선뜻 구매하게 된다. 물품 구매와 더불어 하나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일반 중고 물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값지게 다가왔다. 마치 일석이조처럼.

\*가성비 :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

\*\*빈티지 : 오래돼도 가치 있는 것



사진 : 김유성 기자

▲중고 직거래를 통해 노트북 케이스를 전달한다.



사진 : 황서연 기자

▲'그램달'에서 옷 무게를 잰다.



# 드론 잡는 기술 : 안티드론

(편집자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시청한 적 있는가. 드론 덕분에 우리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광경을 편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이제 드론 촬영이 없는 프로그램은 밋밋하게 느껴질 정도다. 드론은 이러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드론 덕분에 실종자를 빠르게 구조해 사고를 막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드론을 악용한 범죄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드론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데, 부작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권수연 기자 tndusk03@gmail.com

드론은 사전적으로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는 비행체를 뜻한다. 프로펠러를 통해 비행하는 드론의 소리가 벌의 날갯짓 소리와 흡사해 수벌을 뜻하는 'Drone'으로부터 이름이 유래했다. 드론은 크게 두 종류가 존재한다. 우선 '고정익 드론'은 비행기처럼 날개가 고정되어 장시간 동안 높은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다. 때문에 넓은 범위를 촬영할 때 쓰인다. 이와 달리 드론에 달린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비행하는 '회전익 드론'은 방향 전환이 자유로워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전장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 제방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곳에 드론을 투입하는 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 모두 드론을 통한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드론의 기술이 발달하며 전장에서 공격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현대 전투에서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열쇠로 주목받는 것이다. 임현영(경운대학교 무인기공학과)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전투적 활용성이 증가한 것처럼, 드론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드론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1년에는 고층 아파트 주변에서 드론을 띄워 아파트 내부 주민의 사생활을 촬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국에서는 드론에 마약, 휴대전화 등을 실어 교도소 안으로 날려 보내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위진아(용인예술과학대학교 드론기계과) 교수는 "드론이 많이 활용되다 보니 그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체포하듯이 범법 행위에 이용되는 드론을 잡는 안티드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드론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티드론'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티드론이란 사생활 침해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드론을 무력화하려면 각 드론이 합법적인 비행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는 등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는 대부분 지상의 고정형 안티드론을 통해 실현된다. 안티드론을 휴대하며 드론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전파를 발사해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휴대용 안티드론도 존재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안티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 교수는 "드론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비행반경을 제한하고, 비행 능력 무력화에 따른 추락 등 드론이 온전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기술이 안티드론"이라고 설명했다.

안티드론 기술은 크게 ▲탐지 ▲식별 ▲무력화 단계를 거쳐 실현된다. '탐지'란 신원 미상의 비행체가 출현하면 그것이 드론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레이더 탐지 기술 ▲열화상카메라 탐지 기술 ▲음향 탐지 기술 ▲RF(Radio Frequency) 탐지 기술 등이 쓰인다.

'레이더 탐지 기술'은 12~18GHz(기가헤르츠)의 전자파를 발사해 드론의 위치를 탐지하는 기술이다. 발사된 전자파가 신원 미상의 비행체에 부딪혀 반사돼 레이더 수신부에 돌아오면 반사된 물체의 위치나 고도 등의 정보를 산출한다. 산출된 정보를 통해 미확인 비행체가 드론인지 아닌지 탐지하는 것이다.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길고 탐지 정확성이 높은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레이더 탐지 기술은 항공기와 같이 크기가 큰 기체를 탐지할 목적으로 개발됐기에, 크기가 작은 드론이 전자파를 보내는 곳 가까이에 오면 탐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임 교수는 "레이더 탐지 기술은 항공기와 같이 크기가 큰 비행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협이 될 만한 소형 드론은 탐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열화상카메라 탐지 기술'은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으로부터 드론의 모양 등을 인식해 탐지하는 기술이다. 야간과 같이 육안으로 드론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크기가 작은 드론이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경우, 드론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어려워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임진택(전주비전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드론의 특성상 열화상카메라로 드론을 탐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드론이 내는 모터 소리나 프로펠러 소리 등을 이용하는 '음향 탐지 기술'도 존재한다. 각 드론 고유의 소리 데이터를 미리 저장하고 이를 탐지 기술에 사용하기에, 드론의 종류를 구별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리 데이터 최신화가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주변에서 발생



하는 잡음에 취약하다는 것이 개선해 나가야 할 점으로 꼽힌다.

'RF 탐지 기술'은 드론에서 전송하는 전파를 구분해 드론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5GHz 대역의 주파수에서 조종자와 전파를 송·수신하는 보통의 드론은 비행 이전 통신에 사용하는 고유의 주파수를 사전 등록한다. 비행 중인 드론의 주파수를 분석했을 때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주파수 식별을 통해 불법 드론을 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RF 탐지 기술은 동일 주파수 대역에 신호가 존재할 경우 정확도가 낮아지는 한계점이 있다. 도시와 같이 전파가 많은 지역에서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박용한(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RF 탐지 기술은 드론이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를 활용한 원거리 탐지가 가능하다"며 "주파수가 혼재할 경우 탐지가 제한되고, 주파수 대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탐지 기술을 통해 비행체가 드론으로 판단되면 '식별' 단계로 넘어간다. 식별은 드론이 불법적인 비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판별하는 단계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라 드론 소유자는 비행 전 사전 신고를 통해 드론의 종류와 용도 등 드론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드론 비행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식별이 어려운 야간에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체와 비행 현장에 대한 안전 검사를 통해 비행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만약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드론으로 식별된다. 임현영 교수는 "식별 단계는 정상적인 드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미리 비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법 드론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식별 단계에서 불법으로 비행하고 있는 드론임이 확인되면 '무력화' 단계를 통해 해당 드론이 더 이상 비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한다. 무력화의 방법 중 하나인 '하드 킬(Hard Kill)'은 레이저 등을 드론으로 직접 발사해 요격시키는 기술이다. 전장에서 미사일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드론을 격추시키는 모든 방법이 하드 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빠르게 이동하는 드론의 속도를 따라가 정확히 조준해야 하기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한계가 존재한다. 박 선임연구원은 "하드 킬은 오발과 파괴된 드론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드 킬의 부정확함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로 '소프트 킬(Soft Kill)'이 제시된다. 소프트 킬은 전파 교란을 통해 드론과 조종사 간의 연결을 끊는 기술이다. 전파를 교란시켜 드론과 조종사 간의 통신을 무력화시키는 제밍(Jamming), 드론의 소프트웨어 상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해당 구역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시키는 지오펜싱(Geofencing), 드론 비행 제어 시스템을 해킹해 조종자와 드론의 연결을 끊는 스푸핑(Spoofing) 등이 있다. 탐지한 드론이 불법 드론임이 확인됐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소프트 킬의 장점으로 꼽힌다. 전파 교란을 통해 드론이 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하드 킬과 비교했을 때 정확도도 높다. 임진택 교수는 "소프트 킬은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대처를 통한 불법 행위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력화의 2가지 기술은 모두 지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요격 후 남은 드론의 파편이나 조종사와의 연결이 끊어진 후 추락하는 드론이 지상의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물로 드론을 포획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지상에서 그물을 발사하거나 그물을 탑재한 드론이 불법 드론 가까이 접근해 포획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물로 한번에 포획하는 기술을 연구해야 하는 등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존재한다. 임현영 교수는 "그물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기술로,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는 기술"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안티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나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가중요시설 등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현영 교수는 "국가중요시설이나 대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손으로 읽는 문자

'점자의 날'이 지난 11월 4일 97주년을 맞았다.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문자다. 국가마다 사용하는 문자가 상이하듯 점자 또한 국가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을 점자화한 '한글 점자'가 통용된다. 한글 점자는 『점자법』 제4조에 의해 한글과 동등한 우리나라의 문자로 인정되고 있다.

6개의 점으로 이뤄진 점자의 모습은 주사위의 '6면과 유사하다. 6개의 점이 가로로 2개씩, 세로로 3개씩 배열돼 있고, 점들의 평평함과 볼록함으로 각 문자를 나타낸다. 초성과 중성, 종성을 모아 하나의 글자로 만드는, '모아쓰기'를 따르는 한글과 달리 한글 점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가로로 나열해 쓰는 '풀어쓰기' 방식을 따른다. 한글처럼 초성과 종성에 같은 형태의 자음을 사용하면 앞글자의 초성과 뒷글자의 초성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글 점자에서는 같은 자음일지라도 초성과 종성의 점 배열이 다르다. 하병훈(서울맹학교) 교사는 "같은 기역이라고 하더라도 점의 위치에 따라서 초성에 쓰인 기역인지, 종성에 쓰인 기역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암호가 하나의 문자가 되기까지

야간 전투에서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야간문자'가 점자의 시작이었다. 나폴레옹 전쟁이 벌어지던 1808년, 프랑스의 육군 장교인 샤를 바르비에가 야간 전투에서 군인들이 적군에 발각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도록 볼록하고 평평한 점들을 조합한 문자를 만들었다. 해당 문자는 가로로 2개, 세로로 6개의 점이 배열된 형태로 이뤄져, 한 손가락의 끝으로 12개 점의 볼록함과 평평함을 모두 느끼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이후 야간문자를 접하게 된 시각장애인 루이 브라유가 1824년에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한 점자를 고안해 냈고, 이것이 점자의 시초로 인정받고 있다. 루이 브라유는 야간문자보다 간소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가로로 2개, 세로로 3개의 점을 배열해 총 6개의 점으로 점자를 만들었다. 한 손가락으로 하나의 문자를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그의 6점 점자는 널리 퍼져나가 세계 여러 나라 점자 체계의 근본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896년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 평양에서 시각장애인 교육을 시작하며 '평양 점자'가 보급됐다. 평양 점자는 4개의 점으로 이뤄졌기에 루이 브라유의 6점 점자보다 나타낼 수 있는 문자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초성과 종성에 똑같은 형태의 자음을 사용하는 한글의 특성상 4점 점자로는 글자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제생원\* 맹아부의 교사였던 박두성이 6점 점자에 기반한 일본어 점자가 쓰이는 것을 보며 한글 점자를 만들 필요성을 느껴, 1920년 조선어점자연 구원위원회를 조직했다. 하지만 1920년대 당시 한글 점자를 장안하는 것은 우리말 사용을 억제하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연구위원회는 비밀리에 연구를 이어 나갔다. 그 결과 1926년 초성과 종성을 구분해 읽고 쓸 수 있는 점자인 '훈맹정음'이 장안됐다. 이를 발표한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훈맹정음이 지금의 한글 점자의 뿌리라고 입을 모은다. 이승권(서울맹학교) 교사는 "훈맹정음이 한글 점자와 90% 이상 똑같다"고 말했다.

되새겨야 할 점자의 가치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음성 서비스가 점자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음성 서비스가 점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음성 서비스만을 이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한글을 사용할 기회가 감소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이 어렵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어'와 '2'처럼 음성만으로 구분하기에는 일부 제약이 있는 경우, 점자가 필요하다. 시각도 존재한다. 이 교사는 "보통 듣기만 하면 많은 학생들이 띄어쓰기와 맞춤법에 관해 잘 알지 못하게 된다"며 "음성만으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오류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체 불가능한 한글 점자를 보전하려면 사회적으로 한글 점자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한글 점자를 한글과 동등한 문자로 보지 않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범(세종점자도서관) 관장은 "시각장애인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글 점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상생활에서 점자 표기를 늘리는 등의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제생원 :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으로, 고아 보육이나 시·청각장애인 교육을 맡았음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삼 학 송 · 학내 성범죄 근절, 열쇠는 인권센터

수도권의 한 대학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작년 7월 벌어졌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 26일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대학생에게 집이나 다름없는 캠퍼스조차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 내 고층처리장구를 통해 접수된 성희롱·성폭력은 2016년 245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551건으로 증가했다.

대학과 교육당국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공론화될 때마다 CCTV 확충 등의 캠퍼스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만을 댄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안 설비나 인력을 보강하는 조치는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야간 시간대 출입을 막지 못한 곳의 불안전성을 키울 뿐, 성범죄 발생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대학 내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인권센터'가 대학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근본 예방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인권센터는 대학 내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대응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으로, 『고등교육법』에서 모든 대학은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학 안에서 어떤 기관보다도 먼저 나서서 성범죄 등 인권침해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다.

현재 인권센터의 역할은 예방보다 사후 대처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19년 대학 인권센터에 재직 중인 직원 98명에게 인권센터 근무 이전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묻자 45명(45.9%)이 진로·심리상담 등 상담 업무를 맡았었다고 답했다. 인권센터 업무의 초점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보다는 사후 대처에 맞춰져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의 인력구조로는 인권센터가 성범죄 예방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인권센터는 대학 내 성범죄와 성교육 등과 관련한 연구를 주도해야 하고, 현재 대학 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성범죄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방안을 대학본부에 제안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근본적인 차별과 폭력의 구조를 개선하고 인권을 지향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학내에서 인권·성평등 보장의 주축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각 대학이 인권센터 운영에 열의를 보일 날을 기다리겠다. 인권침해 문제, 특히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곳이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의 산실이 될 수는 없다.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인권센터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상혁 편집국장



10·29 참사 1주기를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이태원역 일대에 조성됐다. 추모 공간 바로 옆에 위치한 참사 현장은 성인 5~6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3m 가량의 골목길이다. 인파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파 통제를 넘어 유동인구나 길의 너비, 행사 규모 등을 분석하는 등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도시 건설 단계부터 인구 밀집도 등을 예측해 지역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또 다른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 사고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 기자수첩

'세계 최하위 국가', 기후 위기 대응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갖는 지위다. 2022년에 국제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 등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 정책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후 위기 대응 분야의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산림청의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 예산이 전년 대비 25.7% 감축됐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 부문에서는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데에 쓰이는 예산이 깎인 것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수지예보기술 개발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계획 및 기술개발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연구

##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등의 연구 예산 다수를 '건전제정'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삭감했다.

연구 예산 축소는 가까운 미래에 영향을 미칠 기후 위기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조치다.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각 분야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생산 방식은 무엇인지, 해당 방식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정착하려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지 등은 모두 연구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기후 위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은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가 세금을 대거 투입해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려

고 애쓴다면, 국민은 기후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과제임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산림청의 예산을 비롯한 기후 위기 관련 연구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올해만 돌아봐도 여름 '극한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상이 될지 모를, 참담하고도 두려운 광경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를 넘어 생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고, 예산 투입을 포함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탄소중립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목표

권수연 기자 tndusk03@gmail.com

## ■ 낙산에 올라 지역 축제와 외지 상인, 그 불편한 관계

최근, 지역 축제의 외지 상인들의 바가지 판매가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방송 중, 전통 과자 상인이 전통 과자 1봉지를 무려 7만 원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장면이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에 송출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최근에는, 사업가 백종원 씨가 참가한 '금산 세계인삼축제'에서 외지 상인들의 행동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지역 축제의 외지 상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커지게 되었다. 영상에서 외지 상인들은 떡볶이 한 컵에 1만 원, 어묵 5개에 1만 원이라는 소위 말하는 바가지 가격에 음식을 판매 중인 것이 드러났고, 판매 중인 음식에는 축

제의 특색에 맞지 않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외지 상인들에 대한 인식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된 것이다.

지역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지역 축제에서의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매개체이며, 지역 축제는 해당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지역 상생에도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그렇기에 지역 축제의 흥행은 관광객, 즉 소비자들에게 달려 있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과 퀄리티가 우수한 음식을 원한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의 지역 축제 상인들에 대한 반감은 커져가고 이는 지역 축제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지역 축제의 흥행을 위해선 외지 상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외지 상인들의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 지역 축제의 흥행이 매우 중요하기에, 둘은 현재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다. 이제는 외지 상인들은 정말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할 마지막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외지 상인들이 지역의 특색을 충분히 살린 음식을 선보이고 바가지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었다면, 분명히 시민들은 그 노력을 알아보고 다시 지역 축제를 찾아줄 것이다. 이제는 지역 축제와 지역 상인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바뀌어야 할 때이다.

이원준(컴공 2)

## ■ 의화정

## 내 꿈의 보유수익률을 높이는 법

내일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이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40년간 코스피 지수의 일별 수익률은 상승이 51.3%, 하락 48.7%였다. 즉 지수가 상승 혹은 하락할 확률은 동전 던지기 게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지수에 투자하는 기간을 하루가 아니라 1년, 10년 혹은 20년으로 늘렸을 때는 어떨을까?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렸을 때 수익확률은 65%, 10년으로 늘렸을 때는 86.2%로 크게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보유기간을 20년으로 늘렸을 때의 수익확률은 100%로, 지난 20년간 어느 시점에 투자했던지 보유기간을 장기로 가져갔을 때 손실의 가능성이 0%에 가까워졌다. 이처럼 무작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확률의 미세한 차이는 장

기적으로 확정적인 수익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눈을 반짝이는 모습, 무언가에 집중하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모습, 또 새로운 것을 이해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밝아지는 표정을 보면서 그 모습들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는 학생들은 자신이 환하게 빛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싶었다.

내가 대학 신입생이던 시절에 학교에 방문한 까마득한 선배는 신입생이란 말을 듣고, "잠 좋은 나이구나. 그 나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문득 떠올랐다. 그때의 나는 그 선배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기만 한데 기성세대의 지나가는 덕담으로만 들렸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나는 그때 그 선배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가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모습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요즘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으며, 내가 겪었던 20대와는 또 많이 다르구나 싶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기회의 문은 좁아만 보인다. 어렵지만 그래도 넓게 보고, 자신의 꿈을 향해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한 꾸준함과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자신의 꿈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매일 매일의 승패는 불투명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히 길었을 때는 확정적으로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이니. 벌써 11월이다. 올 한해 남은 기간도 여러분이 계획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길 응원해 본다.

여효성(사회과학부) 교수



## 기자사령

퇴수습기자 김의진(인문 3)

## 동정란

이지영(상상력교양대학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이 교수는 지난 10월 12일 한국연구재단 신성장소외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한국여성심리학회 주관 연구 책임자로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신재홍(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10월 25일 「한국 교육사상의 맥」 도서를 출판했다.



사진 제공 : 369조합

## 369마을, 주민의 진심이 담기다

‘마을’, 현대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마을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이 지닌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곳이 있다. 주민들 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마을이 운영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곳, 바로 본교 뒤편 낙산자락의 369마을이 그 주인공이다.

주민이 하나로 뭉쳐 방치된 마을을 되살리고, 다시 사람들이 찾는 동네로 만든다. 또한 주민들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외되는 이 없이 서로를 챙기는 사람 중심의 삶이 깃든 369마을에 대해 알아보자.

좁은 골목에 오래된 집들이 늘어진 마을인 369마을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로 발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본교 학생들도 동참하며 ‘지역 청년’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곳은 ‘삼선제6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이른바 ‘삼선6구역’에 해당하는 재개발이 예정된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 구역 명칭을 줄여 ‘369마을’로 부르기 시작했고, 곧 369마을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하고 익숙한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369마을의 369는 석 삼(三), 기를 육(育), 언덕 구(丘)를 뜻하며 마을의 정체성과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화합하는 세 가지 가치를 지닌 언덕 마을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369마을은 예정돼 있던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더욱 낙후됐었다. 그러나 이후 주민 동의로 마을은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해제됐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주민들은 369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 재생 방안을 모색했다. 369마을이 가지고 있는 한양도성이나 앵커시설\*\*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마을 재생에 뜻을 가지고 있는 주민과 청년, 예술인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하 369조합)’을 구성했다. 이상훈(369조합) 이사장은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돼 직접 마을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주민·청년·문화예술인이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직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369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세대가 화합하는 마을이 되기를 추구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마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에 369마을은 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인을 마을로 초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369조합은 한양도성 성곽길과 369마을 일대에서 마을에서의 삶을 체험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369성곽여가 : 풍류(이하 성곽여가 풍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곽여가 풍류는 ▲369성곽마을여행 ▲369어머니밥상 ▲369풍류한마당 ▲369성곽예술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과 학생, 문화예술인이 주도해 진행된다. 과연 주민이 주체인 마을은 어떤 모습일지, 본교 학생들은 지역 청년으로서 어떻게 마을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가 직접 성곽 여가 풍류에 참여해 봤다.

### 369마을과 한 몸, 한양도성

성곽여가 풍류 참여자들은 369마을 주민인 최성혁(369조합) 마을해설가(이하 해설가)를 따라 369마을로 향했다. 해설가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양도성 성곽길을 따라 걷게 된다. 참여자들은 성곽길을 따라가며 해설가로부터 한양도성의 역사와 성곽 둘레에 담긴 이야기 등을 듣는데, 관심이 없다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마을 주민은 왜 해설가를 자처해 사람들에게 한양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369마을에 있어 한양도성 성곽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곽길을 중심으로 둘러싼 집들과 한양도성 성벽이 마주해 369마을 어디에서든 한양도성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때문에 369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자산인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369마을 주민 김희준(69) 씨는 “한양도성은 문화재 보존성의 가치가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밥상에 정을 듬뿍 담다, 사랑방

성곽길을 지나다보니 마을의 시작을 알리는 ‘솟대\*\*\*’가 보인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369사랑방(이하 사랑방)’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사랑방은 369마을의 화합을 도모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다. 부녀회 어머니들이 손수 만든 ▲비빔밥 ▲우거지국 ▲식혜 등으로 구성된 ‘369어머니밥상’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초면이라서 서로가 낯선 참여자들과 369마을 주민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어색함도 잠시, 곳곳에서 이야기꽃이 피어오르며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진다. 익숙하던 어떠한 한 가지가 떠오른다. 까마득히 잊고 살

아가던 한국인의 ‘정’이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만큼 이웃관계가 단절돼 가는 현재, 369마을은 되레 서로를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민들은 재료를 배달하고 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누는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사랑방의 따뜻한 정은 참여자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사랑방에서 만난 인연과의 평온한 식사는 지친 일상 속 힐링이 됐다.

### 성곽돌과자를 골라먹는 재미, 마실

주민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으로는 ‘369마실(이하 마실)’이 있다. 마실 내부를 둘러보니 진열대에 유독 눈에 띄는 녀석이 있다. 바로 ‘성곽돌과자’다. 성곽돌과자는 한양도성의 성곽 돌 모양을 한 흑임자 과자로, 축조시기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달라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한양도성에 대한 마을해설을 듣고 성곽돌과자를 먹으니 더 반가운 느낌이다. 성곽돌과자의 포장지를 통해 ▲세종시기 ▲숙종시기 ▲순조시기에 지어졌던 성곽 돌의 각 형태를 알 수 있다. 마을의 지리적 정체성인 한양도성을 이렇게도 활용하고 있구나! 성곽돌과자를 한번이라도 접해본 방문객이라면 자연스럽게 한양도성을 보며 369마을이 떠오를 테다.

성곽돌과자는 마실에서 일하는 지역 청년들이 직접 빚어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지역 청년들이 일상 속 자신들의 시간과 정성을 할애하면서까지 성곽돌과자를 만드는 이유는 자신이 ‘369마을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만난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존속과 발전을 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권서영(마실) 점장은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청년예술가의 영감을 공유하다, 예술상점

마실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369예술터의 작은 입구로 들어가면, 목재로 지어진 작은 미술관인 ‘369예술상점(이하 예술상점)’이 나온다. 예술상점에는 지역예술가인 본교 예술학부 재학생이 그린 369마을의 풍경 그림들이 전시돼 있다. 참여자들은 그림들을 감상하며 369마을의 풍경을 되새긴다. 예술상점은 지역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등 예술

가와 대중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369마을은 예술상점을 통해 다양한 인적자원들을 섭외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며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상점은 더 나아가 예술을 선도하는 곳으로 자리 잡기 위한 소망을 품고 있다. 이 이사장은 “작품들을 판매한 수익금은 청년 작가에게 전달하고 지역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쓰고 있다”라며 “369마을이 문화 예술 콘텐츠가 계속 발휘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렇듯 369마을은 마을 유산을 활용하고 마을을 알리기 위해 여러 주체와 협력한다. 이때 젊은 인적자원을 보유한 대학도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369마을도 마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젊은 세대와 연결될 수 있다. 369마을 주민 정석균(66) 씨는 “한성대학교가 가까이 있으니 협력 사업을 진행해 특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고 전했다.

### 풍류에 하나 되다, 버스킹

예술상점을 빠져나와 마실 앞으로 돌아가니 버스킹 공연이 준비돼 있었다. 이날 버스킹에서는 청년층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부터 모든 세대의 참여자를 신나게 만들었던 구수한 ‘아모르프티’까지, 다양한 곡이 성곽길 언덕에 울려 퍼졌다.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는 다양한 음악에 참여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갔다. 음악으로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버스킹 팀으로 참여한 김다영(더데이애프터) 대표는 “관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맞추며 음악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모여 서로 연결되고 많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며 “369마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 환경이 열악한 마을의 시설을 정비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

\*\*앵커시설 : 주민들의 화합과 생산적인 활동을 이끌어내는 등 마을의 중심이 되는 시설

\*\*\*솟대 : 끝에 오리 모양이 올려진 긴 나무장대로, 마을의 액운·질병 등을 막기 위한 소망을 담고 있음

박건희 기자 enqk@hansung.ac.kr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참여자들이 성곽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마실에서 청년들이 직접 만든 성곽돌과자



▲예술상점에 전시된 본교 예술학부 학생들의 그림



▲마실 앞에서 참여자들이 버스킹을 감상하고 있다.